

보림사에 대한 이야기

인도 성지 순례 늘고있다

'부처님 고향' 서 창작의욕 고취...비블자들도 소설가·시인·화가·사진작가·조각가 등 다수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불자 예술가들이 늘고 있다. 부처님의 체취가 서린 곳, 가난과 문명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 인도에 대한 불자 예술인들의 체험은 창작의욕 고양과 신심 쌓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를 방문한 불자 예술인으로는 작가 정찬주씨와 구효서씨, 시인 윤재림씨, 화가

인 장연소설의 내용이 인도 마우리 왕조의 아쇼카왕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 인도 여행은 매우 많은 것을 안겨다 준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인도의 풍습과 인도인들의 정신가치를 배양에 담아서 돌아와 곧바로 장편을 쓸 계획이다. 최근 시집(황천바람)을 낸 윤씨는 이번 여행을 소재로 <천축 일기>를 쓸 계획도 세우고 돌아왔다. 지난날 12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으로 다녀 온 하수경교수

의 인도 여행은 이번이 두번째. 하교수는 89년 1월 캘커타 북쪽의 부다가야, 사르나트, 루시나가라를 여행하며 인생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정립, 자신의 화폭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두번째 여행을 마친 하교수는 "현대적 물질문명과 각종 유적들의 공존 속에서 인류 정신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간추렸다. 한·인도문화연구원 회장 김양식교수(서울대)의 경우 이미 수차례의 인도 여행을 통해 인도의 풍습과 역사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시에도 다양하게 인도의 정서를 반영시키고 있다. 그밖에 디자인사 안상수씨, 사진작가 안장현씨, 소설가 강석경씨, 도부조작가 임효씨, 시인 문정희씨 등도 각각 1~2회씩 인도를 여행한 불자 예술가들. 인도를 다녀와 인도 기행집을 낸



보림사 발견 불경 국보급 희귀본

지난달 22일 전남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약 250책(冊)의 고서들은 대부분 고려 말~조선 초기의 국보급 희귀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견된 고서 가운데는 <반야심경(1411) 등 15~17세기 조선 초에 간행된 불경과 스님들의 전기 등이 많아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불경언해본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희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림사에서 발견된 계초심학인문의 첫장

지난 13일부터 보림사 발굴 고서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온 순천대 박물관관장 조원래(은)는 지난달 26일 사천왕

'고봉화상선요' 등 2백50여권 14C 인쇄문화·언어 연구자료

상의 무늬·발음에서 발견된 고서들 가운데는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傳要)>(1358) 등 최고 관본의 경전들을 비롯, <동산화상 육도보살(東山和尚六道普說)>(1575·해남 금강사) 등 간행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미공개본 10여권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발견된 고서들은 <동산화상 육도보살(東山和尚六道普說)>(1575·해남 금강사) 외에 <육경합부(六經合部)>(1458) △<계초심학인문(契初心學人文)>(구결), <초발심자경론(1567·쌍계사) △<불설대보(佛說大報) 부모은중경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大行)스님의 '뜻으로 본 반야심경'이 찬불가 작곡가 변규백씨에 의해 대형 합창곡으로 작곡됐다. "한 글자의 첨삭도 없이 인문

대행스님 풀이 반야심경 찬불가 작곡 변규백씨

그대로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길어 음절 구분하기가 다소 힘들었다는 변규백씨는 "뜻으로..."를 8분25초 분량의 곡으로 완성, 올 봄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초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례의 작곡을 기울여 만들어진 이 합창곡은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대형 합창곡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독창, 중창으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변씨



18개월 작업...8분25초 대작 올봄 한마음선원 합창단 초연

는 선창자가 앞소리를 메기고 대중이 뒷소리를 합송하는 장엄 염불곡 형식으로도 들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에서 흥겹게 부를 수

있도록 장단을 우리의 전통 가락인 굿거리, 풍물리, 자진모리에 맞춰 작곡했습니다. 반주는 피아노나 오르แกน으로도 가능하며 합창을 위해서는 국악 관현악이 좋을 것입니다" 한자 반야심경이 갖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한글로 풀어 극복시킨 가사에 경쾌한 전통 가락을 붙인 '뜻으로 본...'은 반야심경과 찬불가 대중화에 기여할 것을 확실하다는 변씨는 "이 곡은 불자면 누구나 불러야 할 신령의 필수곡목"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한문 반야심경은 변규백씨가 최초로 작곡했으며 이어서 장영, 김동환씨들이 작곡했다.

"만해, 禪 대중예술화 기여"

이경교씨 東大 박사논문 한울은스님과 이육사 그리고 이상(李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혁신의 역사적 구제성을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동국대대학원(국문학과) 94년도 후기 박사논문으로 시인 이경교씨가 "한국 현대 시정신의 형성과정 연구: 한울은, 이육사 그리고 이상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제출한 이 논문은 이를 3인의 시인을 "전통의 집

'굴렁쇠어린이' 재호변경 '동쪽나라'로 발간 모든 어린이에 유익한 잡지...읽을거리 풍성

교계유일의 어린이 전문잡지 '굴렁쇠 어린이'가 '동쪽나라'로 재호호를 변경하고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나왔다. 3월호부터 24면이 증편돼 총132면의 지면에 상원사 월정사 인월사등의 '국토순례' 캠프다이어리 '부처님 따라가는 세계여행' '공복 50주년 기념 태백산 호랑이 신록석장군'

정화한 세계였으며, 그런 점에서 한울은은 불교의 대중화, 선(禪)의 예술화를 대중적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시인이었다"는 것이 이씨의 평가다. 이씨는 "우리시의 시정신에서 불교적 인생관이 부각되는 이유는 불교의 잠재력이 지닌 각성(覺醒)의 요소"라고 지적하고, "세계의 자아화라고 하는 시의 속성에서 해석할 때,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 신비가 예술의 뜻을 입고 서경화한 세계를 선시(禪詩)라고 한다. 선시야말로 불교의 꽃이며, 정신의 꽃"이라고 말했다.

동쪽나라

특히 단군건국 신화의 고대사에서 근대사·현대사까지의 역사를 담아 내는 '이야기 역사탐험·발음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 성지 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출발: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140만원
일정: 서울-이슬라마바드-타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키타비)-타타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티벳·네팔 10일

출발: 4월 8일 ·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미얀마·태국 7일

출발: 3월 20일 · 동참금: 135만원
일정: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페구-양곤-방콕-서울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 3월 19일 · 동참금: 215만원
일정: 서울-델리-리나우-발람푸르-룸비니-루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그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라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풀론나루와-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0일

출발: 4월 21일 · 동참금: 150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루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엠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 3월 24일, 4월 21일 · 동참금: 11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풀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 4월 16일 · 동참금: 95만원
일정: 서울-네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출발: 4월 21일 · 동참금: 65만원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화롄-타이페이-서울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부처님고행상)

HVECHO ADVENTURE TOURS, LTD. **헤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대)